

제11장 레지오의 기본 요소

1. 개인성화 - 그 목적과 방법

레지오 마리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이다. 각 단원은 성령의 감화 아래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자신의 행동 원리와 버팀목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자신의 최종 목적과 목표로 삼아 행동하며 봉사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마리아가 단원들에게 애써 장려하는 거룩한 삶은 레지오의 으뜸가는 활동 수단이기도 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교회의 신비를 거룩한 공의회가 제시하는 대로,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고 믿어진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홀로 거룩하시다’고 칭송받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에페 5,25-26 참조),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1테살 4,3; 에페 1,4 참조) 한 사도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교계에 소속된 사람이든 교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이든 다 거룩함으로 부름 받고 있다. 교회의 이 거룩함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로 끊임없이 드러나며 또 드러나야 한다. 그 거룩함은 자기 삶에서 사랑의 완덕을 지향하며 들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흔히 복음적 권고라고 불려 왔던 권고의 실천에서 고유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개인적으로든 교회에서 인정받은 생활 형태나 신분으로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적 권고의 실천은 이 거룩함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세상에 보여 주고 있으며 또 보여 주어야 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9항)

2. 강력한 질서 체계

엄청난 힘을 만들어 내는 천연 자원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폐물이 되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성을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거나 정열을 방임하게 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한 열성과 정열은 오래 지속되지도 못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활동 수행을 강조하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레지오는 규정의 힘에 큰 비중을 둔 강력한 질서 체계를 마련하여, 단원들이 세부 규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켜 나가는 정신을 지닐 것을 명령한다. 바로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 직원들에게 단순히 규정을 지키라고 권장하거나 알아 둘 사항 정도로만 여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레지오만의 특징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덕에 속하는 자질, 즉 신앙심, 성모님에 대한 사랑, 담대함, 자기희생, 형제애, 자주 기도하는 생활, 신중, 인내, 순명, 겸손, 기쁨, 사도직 정신에서 항구하게 되고 뚜렷하게 성장할 것임을 약속한다. 1

“일반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이라 불리는 사도직이 성장한 것은 현 시대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으로, 이 사도직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만 감안하더라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운동에 대한 대비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세속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훌륭하게 구상된 수많은 수도회들과 비교했을 때, 세속에 남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착안된 조직 형태가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쪽은 수도 생활을 택한 사람들로 최상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깊이 있고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규정이 얼마나 기초적이고 피상적인가! 사실 평신도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봉사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발적으로만 봉사할 것을 요청할 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평신도 단체에 대한 더 차원 높은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평신도 단체는 소속 회원들이 이 지상에서 걷는 순례 여정에서 지팡이가 되어 그들의 영성 생활을 떠받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 일반에게 수도회가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이 동등하다면, 평신도 단체가 수도회 개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평신도 회원들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단체의 규율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규

을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단체의 매력을 감소시킬 위험은 늘 존재한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영구적인 평신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지, 역사를 통해 수없이 목격한 것처럼 언젠가는 수도회로 그 모습이 변해 버리게 될 새로운 수도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이다. 즉 우리가 아는 평범한 생활을 사는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단체에는 수도회처럼 순수하게 종교적인 취향과 목적만 허락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목적이 공존할 것이다. 규정의 수준과 범위는 단체가 회원으로 삼고자 하는 일반 신자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여야 한다. 물론 그 이하의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미카엘 크리든 신부 Fr. Michael Creedon / 레지오 마리아 콘칠리움 초대 영적 지도자)

3. 이상적인 단원

단원이 애써 수고한 일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만족도나 겉으로 드러난 성공 정도를 단원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가 레지오 조직에 얼마나 정확하게 밀착해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단원이 조직에 복종하고 있는 그 정도만큼만 레지오는 그를 단원으로 여기며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와 브레시디움 단장들은 단원 자격에 관한 이러한 개념을 언제나 단원들 앞에서 지니고 있도록 요구받는다. 성공과 위로는 모든 단원이 달성할 수 있는 이상(理想)이 아니지만, 조직에 충성하는 일은 모든 단원이 이룰 수 있는 이상이다. 단원이 레지오 조직에 확고히 밀착해 있을 때야만, 활동의 단조로움, 내키지 않는 활동, 이미 겪었거나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작할 때에는 가장 잘 될 것이라 예상하던 사도직 활동마저도 지루함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 또는 예상되는 실패 때문에 반드시 중단하게 된다.

“우리가 마리아회(the Society of Mary)에 하는 봉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순명으로 받아들인 직무가 아무리 미천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얼마만큼의 초자연적인 정신과 열성으로 마리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마리아회 : 성모학 소론)

4. 으뜸가는 의무

레지오는 조직 안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합과 단원의 관계는 마치 돋보기 렌즈와 태양 광선의 관계와도 같다. 돋보기 렌즈의 초점이 태양 광선을 집중시키면 불을 일으키고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불붙게 만든다. 레지오를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회합이다. 회합을 통한 결속이 끊기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면 단원들은 떨어져 나가고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단원들이 회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레지오 조직의 힘은 굳세어진다.

레지오의 조직 및 이 조직의 핵심인 회합의 중요성에 관해 레지오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레지오 초창기에 쓰인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잘 드러난다.

“레지오 조직 내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단원일지라도 톱니바퀴의 역할에 만족한다. 각 톱니바퀴는 자기와 한 몸과 같은 동료 톱니바퀴들인 기계 장치에 자기의 독자성을 대부분 양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은 백배의 성과를 거둔다. 수많은 개별 톱니바퀴들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톱니바퀴들은 자기가 가진 하나하나의 약점이 아니라, 자질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질에서 나오는 능력과 열정으로 작동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개별 톱니바퀴들은 아무런 능률도 내지 못하거나 한가하게 놓고 있었을 것이다. 사용되지 않고 놓여 있는 석탄 조각들과 용광로 한 가운데에 있는 석탄 조각들을 생각해 보라. 레지오 안에서 단원과 조직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라는 조직체는 그 조직체의 구성원들의 생명력과는 별개로, 뚜렷이 식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레지오가 수행한 긴급하거나 아름다운 사업보다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이 특성이 자석과 같이 새로운 단원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레지오 조직은 전통을 세우고 자기 단원들에게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존경과 순명을 즐겨 누리면서 그들에게 강력히 영감을 준다.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러면 그들이 지혜로운 노모에게 의지하듯이 레지오 조직에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단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된 일이다. 레지오는 온갖 위험에서 단원들을 구해주지 않는가? 레지오는 열성에서 나오는 경솔함, 실패로 인한 낙심, 성공이 만드는 교만심,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망설임, 외로움에서 오는 소심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험 부족에서 말미암은 위험한 상태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있다. 레지오는 선한

지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원자재를 취하여, 정해진 계획대로 자신의 활동을 하고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해 주면서 교육시킨다.”(미카엘 크리든 신부 Fr. Michael Creedon / 레지오 마리아е 콘칠리움 초대 영적 지도자)

“마리아회(the Society of Mary)를 회원들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라본다면, 하늘의 모후이신 마리아가 가시적으로 확장된 현현(顯現)과도 같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가득한 당신 모성의 품에 받아들이시듯 우리를 마리아회에 받아들이시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적 임무를 맡겨주심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협력하는 당신의 사명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우리 회원들에게 본회의 이상과 관심은 마리아의 이상과 관심과 동일시된다.”(마리아회 편찬 : 성모학 소론)

5. 뻘레시디움 주회합

뻘레시디움은 풍성한 기도와 신심에 찬 말씨, 감미로운 우애의 정신이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회합을 개최하고, 이 회합에서 각 단원에게 활동을 배당하고 각 단원이 수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주회합은 레지오의 심장으로서, 이 심장으로부터 생명의 피가 나와 모든 동맥과 정맥으로 흘러 들어간다. 주회합은 레지오가 자신의 빛과 힘을 끌어내는 발전소이고, 레지오가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보고(寶庫)이다. 주회합은 중요한 공동체 행사로서, 그곳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단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활동에 필요한 특유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며, 단원들은 종교 규율 정신으로 고취된다. 종교 규율 정신으로 고취된 단원들은 가장 먼저 하느님의 영광과 개인의 성화를 보살피고, 이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상으로 기획된 레지오 조직을 그 다음으로 보살피며,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배당된 활동을 개인적인 취향을 억누르며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주회합에 참석하는 일이 레지오에 대한 으뜸가는 의무이자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주회합 참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주회합 참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이 으뜸가는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곧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은 이치로 보아도 그렇고 이미 경험상으로도 잘 드러나 있다.

“마리아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적용한다. ‘그대가 잘 달리기는 하나,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모님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도달하는 끝은 어디이겠는가?”(페치탈로 Petitalot)

제12장 레지오의 외적 목표

1. 실제 다루어야 할 일

레지오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단원들을 성화시키는 일을 그 으뜸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지오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원들이 레지오의 여러 회합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레지오의 회합은 기도와 신심이라는 두 요소가 일련의 모든 회합 절차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잘 짜여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단원들의 거룩함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도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단원들의 거룩함에 사도직 특성을 부여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즉 단원들의 거룩함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여 단원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스스로 발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원들이 발달시켜 놓은 힘 즉 그들의 거룩함을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룩함을 발산하는 일은 이미 발달된 그 거룩함을, 일종의 상승 작용을 통하여,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도직 정신은 사도직을 통하여 가장 잘 함양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레지오는 쁘레시디움이 각 단원에게 배당하는 주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본질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로 부과한다. 회합에서 부과되는 활동을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부터 활동은 시작된다. 그리고 쁘레시디움은, 뒤에 설명하게 될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당 단원이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레지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주간 활동으로 배당하기를 바란다. 단원들을 열성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대상도 그 열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탐탁지 않은 활동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노력과 희생으로 보답하려던 단원들의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움츠러들고 미지근하게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처음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만물이 창조되었다. 나를 창조하실 때에도 단 한번 단 한 말씀만 하셨다. 그러나 나를 다시 창조하실 때에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기적도 여러 차례 행하셨으며 숭한 고통까지 받으셨다.”(성 베르나르도 St. Bernard)

2. 더 멀고 큰 목표 - 지역 사회의 누룩이 되는 일

단원들이 수행하는 주간 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레지오는 주간 활동을 단원들이 펴는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주된 목표로조차 여기지 않는다. 레지오 단원들은 아마도 한 주간에 두세 시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간 활동에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용광로 한 가운데에서 불붙은 사도직 불꽃에서 흘러나오는 발광체처럼, 그 주간의 매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사도직 불꽃이라는 특성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세상 방방곡곡에 막강한 군단을 투입해 놓았다. 사도직 정신은 오로지 주인 자격으로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모두 다스리며, 외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도직 불꽃을 받았다면 가장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일지라도 타인을 감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사도직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때라도, 죄와 냉담이 자기들보다 더 큰 힘에 굴복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장군이 중요한 전투 거점을 장악한 후 만족스럽게 바라보듯이, 레지오는 가정, 가게, 공장, 학교, 사무실 그리고 그 밖의 일터와 유흥 장소에까지도 참된 레지오 단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해한다. 참호를 파놓고 방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추문과 불신앙이 최악의 상태인 지역에서라도, 이처럼 또 하나의 '다윗의 탑'이 버티고 있다면, 악은 더 이상 전진할 길이 막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타락은 결코 묵인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타락은 탄식과 기도의 주제가 될 것이며, 단호하고 줄기찬 싸움을 통하여 마침내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레지오는 단원들을 회합에 한데 모아,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꾸준히 기도를 바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죄악과 슬픔에 찬 곳으로 단원들을 파견하여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활동하는 동안 사도직 열정에 불이 붙어 더 큰일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레지오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길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로 삼는다.

레지오는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레지오 대열에 동참할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이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가 활발히 이용해준다면, 죄로 물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신기할 정도로 효과적인 도구를 레지오 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이름에서 '군단'인 것처럼 수에서도 '군단'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의 수가 배가되기를 몹시 갈

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보조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이들’ 그리고 ‘활동 대상이 되는 이들’ 사이에 특정 공동체나 지역의 전체 인구가 포함될 수 있고, 이들을 ‘신앙 생활을 무시하는 단계’ 또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 구성원 단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마을이나 도시에서 일어난다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더 이상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한 어떤 강력한 힘이 직접적으로나 성인들의 통공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곳까지 자극을 보내는 것이다. 하느님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구 전체라니, 이 얼마나 이상적인 일인가!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이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이상은 눈을 높이 들고 두 팔을 펼치기만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평신도는 진정으로 ‘선택된 백성, 거룩한 사제’이며, 아울러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성소와 사명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그들이 살아가며 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속에 복음을 심어 누룩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정치, 언론,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산업이나 직장도 같이 이 세상을 이루는 거대한 세력들은 바로 평신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특별히 역량을 갖추고 있는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며 그에 대한 현세적인 지식과 기술에 충분히 역량을 갖춘 평신도들이 이러한 세력들을 지휘하게 된다면, 진정 세상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그 안에서부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79년 10월, 아일랜드 리메릭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

3. 모든 이를 하나로 만드는 일

레지오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마태 6,33) 찾는 일, 즉 영혼들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전적으로 투신한다. 그러나 레지오는 “이에 더하여” 주어진 그 밖의 것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레지오는 국가적으로는 자산이 되며,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혜택을 가져다준다.

사회라는 기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일반 기계들이 그렇듯이, 모든 구성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며 협동해야 한다. 따라서 기계의 각 부분처럼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히 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생겨 균형이 깨어지고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들이 서로 어긋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나 정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수리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더욱이 이렇게 얽힌 문제들을 시정하려다 보면,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마음이나 자발적인 협동 정신에 상처를 주게 되어 점점 더 잘못 되어 가는 일도 생긴다.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령 구성원의 절반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는 엄청난 빈곤과 좌절감, 그리고 불행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한 힘의 원천이어야 할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러한 공동체를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거리나 혼란 또는 위기만 가득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질서가 가장 잘 잡혀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기주의가 개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증오심은 많은 사람들을 무서운 세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새로운 나날을 맞이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생생한 진리로 떠오른다. “하느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느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만물, 땅 위와 천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될 것이다.”(브라이언 오히긴스 Brian O’Higgins) 국가란 개인의 삶을 합해 놓은 집합체일 따름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삶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가 어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나라 자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나라가 혼돈 이외에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자기희생과 상호사랑과 이상(理想)에 대한 생각으로 개개인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보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극도로 심한 염증은 치유되며 삶은 그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 그 나라는 고결한 규범 위에 삶을 건설하고, 국민 전체가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마땅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된다. 그러한 나라는 틀림없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것이며, 세상은 그 나라를 본받으려고 몰려올 것이다. 레지오가 평신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영향 아래 들어오는 평신도들에게 뜨거운 이상을 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지오는 그러한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분열과 차별과 상호 반목을 잊고 오직 인류를 위하여 일하고 사랑하려는 열망으로 활기를 띠게 한다. 레지오가

전하는 이상은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이상은 모든 일을 봉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위대한 희생정신을 이끌어 내며, 영웅적인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해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레지오는 단원들의 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모든 힘은 반드시 그 원천이 있다. 그리고 레지오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일찍이 나자렛 마을의 주민이셨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이 두 분은 깊은 신앙심으로 달신들의 마을과 나라를 사랑하셨다. 유다인들에게 신앙과 조국은 하느님의 뜻에 의하여 마치 하나처럼 한데 얹혀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 고장의 평범한 생활을 모든 면에서 어긋남이 없이 사셨다. 두 분은 고장 사람들과 풍물 하나하나를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느 것 하나 무관심하셨거나 등한히 하셨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바로 이 두 분의 나라이며, 어느 곳이나 두 분이 사셨던 나자렛 마을이다. 더욱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는 이 두 분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욱 밀접하게 맺어진다. 다만 이제는 이 두 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비체의 지체들인 우리가 자신의 고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힘껏 노력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우리 고장에 오시어 영혼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 환경에까지도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문제는 줄어든다. 이러한 진정한 개선 효과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 사회 안에서 믿는 이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가짐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이 조국이라는 낱말은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영토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참된 애국심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세상에는 애국심을 나타내는 지도나 모델이 없다. 애국심과 비슷한 것이라면 전쟁 중에 드러나는 충성과 자기 희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랑보다는 증오에서 유발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한다면 파괴하는 일을 지향한다. 따라서 순수한 애국심의 올바른 유형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레지오가 ‘조국에 대한 참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단원들에게 강조해 오고 있는 바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바치는 영성화된 봉사이다. 이러한 봉사는 영적 동기에서 우리나라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와 봉사를 통한 모든 접촉 기회를 영적인 것을 장려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봉사 활동은 ‘조국에 대한 참된 충성’의 전체 취지를 그르치게 한다. 그러기에 뉴만 추기경(John Henry

Newman)은 이 충성의 근본 취지를 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물질적 진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반드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야만 한다.

세상 사람들이여, 보라! 레지오야말로 하느님의 숭고한 사업을 위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신비의 기사단이 아닌가? 레지오는 이 기사단을 언제라도 부릴 수 있게 준비해 두고 있지 않은가? 시인 테니슨은 아더 왕의 무용담에 나오는 기사들의 봉사 정신을 가리켜 “각기 다른 세상의 곳곳에서 기사들을 불러들여, 원탁의 기사로 함께 모았네. 영광의 무리, 사나이들의 꽃, 강력한 세상을 가꾸는 무리들의 모범이며, 한 시대를 여는 보람찬 출발이여!”라고 아름답게 읊었다. 레지오는 아더왕의 전설적인 전투를 훨씬 뛰어넘는 봉사를 수행하지 않는가?

“이렇게 교회는 동시에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로서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 세계와 함께 함께 동일한 지상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누룩으로서 또 마치 그 흔처럼 존재한다.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상 국가와 지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현세의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때문에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바로 신앙을 통하여 각자 부름 받은 그 소명에 따라 현세 의무를 더더욱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40항 및 43항)

“공의회 교령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필요성과 의무에 대한 실천적인 응답을 1960년에 시작된 ‘조국에 대한 참된 충성’으로 알려져 있는 레지오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레지오가 현세에 제공하는 것은 비범한 앎이나 전문 지식, 뛰어난 기술, 수많은 일꾼이 아니라, 오직 영성적인 활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영성적인 활력이 레지오를 세계적인 단체로 이끌었고, 하느님 백성의 어떤 영역이든 레지오를 이용할 안목과 좋은 감각을 가졌다면 자신을 고양시키는 일에 이 영성적인 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도권은 레지오로부터 나와야 한다. 레지오는 세속적인 것을 부추기는 일은 모두 멀리하지만, 위에 언급한 공의회 교령의 가르침의 의미에서 늘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써야 한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도 물질 세계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토마스 오

4. 하느님을 위한 고귀한 사업

오늘날처럼 신앙이 특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기사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속주의와 반(反)종교주의는 수완 좋은 선전 매체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온 세상을 휩쓸고 삼켜 버릴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가공할만한 세력에 비한다면 레지오는 얼마나 온순한 작은 양떼에 불과한가!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레지오는 지극히 큰 능력을 지니신 동정녀와 결합하고 있는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레지오는 훌륭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레지오에게, 레지오를 통하여 큰일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유다 1,4)를 부인하는 다른 군대들이 목표로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레지오의 목적이 하느님과 신앙을 모든 영혼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임에 반하여, 다른 세력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지오가 그러한 불신앙의 제국에 의도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훨씬 단순한 동기로 시작되었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성모상 둘레에 모여 앉아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다. 성모님과 일치된 그들은 거대한 도시의 병들고 슬퍼하고 낙담한 이들로 가득한 어느 큰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모님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그처럼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 안에 계시는 아드님을 위하여 성모님이 하시는 어머니 역할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모님과 손잡고 소박한 봉사 활동을 펴기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군단을 이룰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제 레지오는 온 세상에 뻗어나가 사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소박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

세속주의적 성격의 조직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선언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애라는 공허한 복음을 전파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타성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길로 빠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

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St. John M. Vianney)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한다.”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희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에 대한 참된 영웅적 사랑을 통하여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믿음에 감동받지 않을 수도 없다. 교회가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라.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랑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것처럼 사로잡지는 못한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신자 역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대한 이러한 지극한 사랑의 실천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몇 사람의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보여주는 선행 정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선행이 진정한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평신도들이라는 보편적인 집단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이처럼 고양된 정신으로 불붙게 하는 일은 가능성이 없는 일인가? 과연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끝이 없는 장애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세속에 젖은 무리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강심장을 지닌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좌절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리아는 레지오의 심장이시며, 이 심장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레지오가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다보면, 활기찬 희망이 한꺼번에 모두 솟구친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 레지오는 초창기부터 항상 그렇게 해 왔듯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하며 위대하신 모후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레지오는 세속주의와 반(反)종교주의라는 적대 세력과 서로 대결하고 있다. 이 적대 세력은 신문,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통한 끊임없는 선전과 광고 활동으로, 낙태, 이혼, 임신 중절, 마약 등 온갖 유해하고 잔인한 내용을 각 가정 깊숙이 내보내고 있다. 그 결과로 새로 태어난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이러한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해로운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레지오 마리아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충분

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조직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레지오의 추진력은 레지오의 영성에 있다. 레지오의 영성이란 성령과 그 배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참으로 깨닫고 그에 의지하는 것으로, 생명의 빵인 성체성사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이 두 세력이 대결하게 되면 레지오의 정신이 승리할 것이다. 단원들이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썩먹고 있는 무사안일주의와 타협주의 그리고 우유부단과 효과적인 싸움을 벌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이든 맥그래드 신부 Fr. Aedan McGrath, S.S.C.)

제13장 단원의 자격

1. 레지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단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가)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

(나) 교회의 사도직에서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

(다) 레지오의 행동단원으로서 각각의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2. 레지오에 입단을 원하는 신자는 브레시디움에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3. 18세 미만의 후보 단원은 소년 브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제36장 참조).

4. 입단 신청을 받은 해당 브레시디움의 단장은 그 신청자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한 후 그가 가입 요건을 갖추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예비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 예비단원은 적어도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친 후 정단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단원은 처음부터 레지오 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

6. 예비단원에게 뗏세라를 지급해야 한다.

7. 예비단원이 정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단원 선서를 한 후 브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레지오 선서문은 제15장에 실려 있으며, 낭독하기 쉽게 되어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몬시뇰이었을 당시 교황 비오 12세를 대신하여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도직 선서이자 성모님께 드리는 서약문인 레지오의 선서는 온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 특히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단원들을 한층 더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

수에넨스 추기경(Cardinal L. J. Suenens)은 레지오의 선서문에 대한 해설서인 <사

도직 신학》을 썼으며, 이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다. 이 소중한 책을 단원들은 항상 가까이 지녀야 한다.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이 있는 가톨릭 신자라면 모두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교 사도직에 관한 여러 원리가 훌륭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예비단원이 수련 기간을 만족하게 끝냈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입단을 사전 통보하여 준비시킨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예비 단원은 선서문의 내용과 뜻을 익혀야 하며, 실제로 입단 선서를 할 때에는 그 뜻을 새기면서 진지하고 유창하게 선서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나) 선서는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실시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까떼나를 바치고 난 다음, 모든 단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선서할 예비단원 곁으로 백실리움을 옮겨 놓는다. 그런 다음 예비단원은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지정된 대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큰소리로 낭독한다. 선서문의 셋째 단락에서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를 낭독하면서 백실리움 깃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선서가 끝나면 영적 지도자(사제 참석 시)가 선서를 마친 단원에게 강복을 준다. 그리고 그 단원의 이름을 정식으로 단원 명부에 올린다.

(다) 선서가 끝나면, 단원들은 자리에 앉아 훈화를 들으며, 회합은 평소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라) 쁘레시디움에 백실리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비단원은 백실리움의 그림을 대신 손에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백실리움 그림이 들어 있는 뗏세라를 사용한다.

8. 일단 예비단원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입단 선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의 예비단원이 한꺼번에 선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바치는 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서하는 단원의 수가 많을수록 각자가 선서를 통해서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9. 감수성이 특히 예민한 사람에게는 선서식이 마음의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 의식이 엄숙하고 진지할수록 앞으로 그가 단원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예비단원을 따듯이 받아들이어 임무를 가르쳐 주고, 수련 기간과 신단원 생활을 하는 동안 돌보는 일은 주로 부단장의 임무에 속하지만 단원 모두가 함께 거들어야 한다.

11. 만일 어떤 사유로 예비단원이 입단 선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수련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다. 쁘레시디움은 예비단원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입단 선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비단원에게도 결심을 하는 데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3개월의 연장 기간이 끝나면, 예비단원은 심중유보 없이 선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

만일 어느 단원이 입단 선서를 한 후에도 마음속으로 선서를 거부한다면, 도의상 레지오를 떠나야 할 의무가 있다.

수련 기간과 선서는 레지오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레지오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레지오에 들어와서 레지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 정신을 약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관문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영적 지도자는 선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도 선서할 수 있으며, 만일 선서를 한다면 쁘레시디움으로서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다.

13. 선서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치에스나 기타 행사 때 일종의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이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14.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쁘레시디움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상당한 이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회합 불참이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볍게 퇴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단원이 퇴단하여 그의 이름이 단원 명부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을 경우, 그가 다시 입단하려면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15. 레지오 활동이라는 목적에서 동료 단원들을 ‘형제’ 또는 ‘자매’라는 호칭으로 부르나, 오로지 이 목적에서만 그렇게 부른다.

16. 필요한 경우 꾸리아의 승인을 얻어서, 남성이나 여성, 소년이나 소녀 또는 혼성 쁘레시디움을 만들 수 있다.

레지오는 맨 처음에 여성들의 조직체로 태어났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 첫 남성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레지오는 남성들의 단체로서도 알맞은 기틀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남성 쁘레시디움과 혼성 쁘레시디움이 아주 많이 운영되고 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에서는 첫 번째 쁘레시디움이 남성으로 이루어

졌었다.

이처럼 레지오에서는 여성이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남성 대명사가 남녀 단원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또는 그녀’라는 번거로운 되풀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 한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도직을 실천한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소명이다. 살아 있는 몸에서 그 지체들이 단순히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생명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 몸이 자라난다.’(에페 4,16 참조). 또한 이 몸에서 기관들의 관계와 결합은 매우 밀접한 것이므로(에페 4,16 참조) 자기 역량에 따라 몸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기관은 교회나 자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고 할 수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항)

제14장 뵤레시디움

1. 레지오 마리아의 기본 단위 조직은 뵤레시디움(Praesidium)이다.

이 명칭은 라틴말로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로마 군단의 파견대를 가리키는 말이었
는데, 전방의 한 분대, 요새(要塞)로 쓰는 진지, 수비대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뵤
레시디움이란 용어는 레지오 마리아의 기초 조직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말이다.

2. 뵤레시디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비의 모후’처럼 성모님의 칭호를 따를 수도 있
고, ‘원죄 없으신 잉태’와 같이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또는 ‘엘리사벳을 찾아보
심’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에서 따 올 수도 있다.

자기 교구 내 곳곳에 수많은 뵤레시디움들이 존재하여 이른바 ‘살아있는 성모 호칭
기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교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3. 뵤레시디움은 소속된 모든 단원들에 대한 지휘권과 단원들의 활동을 관리할 권한
이 있다. 단원들은 뵤레시디움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

4. 뵤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인가된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칠리움
(Concilium Legionis)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레지오에 소속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꾸리아나, 가까이에 꾸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직속 상급 평
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콘칠리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뵤레시디움
을 설립할 수 없다. 뵤레시디움은 반드시 그와 같은 통치 기관에 직속되어야 한다.

5. 본당 사목구 안에 뵤레시디움을 설립할 때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뵤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를 초빙
해야 한다.

6. 뵤레시디움은 매주 회합을 가져야 하며, 주회합은 교본 제18장 [뵤레시디움 회합
의 순서]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매주 회합을 갖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
유를 내세우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주일에 한 번만 회합을 가져도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거듭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회합 이외에는
승낙할 수 없으며, 어떤 평의회에도 이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해야 할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 회합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의 회합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매주 활동을 했는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회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으로 매주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주회합을 통하지 않고서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매주 회합에 참석하려면 자기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레지오가 자신 있게 이 같은 자기희생을 단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면, 레지오 조직을 세울 기본 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7. 각 쁘레시디움은 한 명의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또한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제34장에 설명되어 있으나, 그 첫째 임무는 통상적인 활동 의무를 다하여 모든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8. 간부들은 꾸리아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 내용을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통해서 단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단원들이 꾸리아에서 토의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게 해야 한다.

9. 영적 지도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 또는 직권자가 임명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지도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단원을 트리뷴(Tribune)이라 부른다.

쁘레시디움은 영적 지도자에게 회합의 개최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실제로 회합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합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의 간부이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10.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제기된 신앙이나 도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의 결정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쁘레시디움의 모든 의사 진행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유보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다. 다만 모든 무기가 그러하듯이, 이 무기는

조직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유보 권한이 파괴성 무기로 바뀌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어느 단체이든 조직이 잘되어 있고 올바른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치바르디 Civardi : 가톨릭 운동 지침서)

1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브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 꾸리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속 상급 통치 기관이 브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한다. 간부가 될 만한 사람의 적격성에 대하여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부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즉, 꾸리아 단장은 가장 적격자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간부 후보자에 관하여 - 특히 해당 브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에게 -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 후보자 이름을 꾸리아에 제출한다. 꾸리아는 그 단원이 적격자라고 인정되면 그를 간부로 임명한다.

12.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총 6년간 동일 간부직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를 완료한 간부는 동일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브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맡는 경우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3년이 경과된 후에는 같은 브레시디움에서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단원을 다시 간부로 임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만일 그가 첫 번째 임기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 번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두 번째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임기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가 있다.

“간부의 임기 문제는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신심 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항상 유의하여야 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단체나 단체의 한 부분이 경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커다란 위험이다. 맞서 싸워야 할 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악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 시들해지고 진부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퇴보가 계속되면 활동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그 단체는 가장 탐나는 회원들을 끌어들이지도 붙잡아 두지도 못하여,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레지오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평의회와 모든 브레시디움에서 열정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레지오는 먼저 열정의 원천이어야 할 간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간부들이 처음에 지녔던 열정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부들을 교체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린다. 간부들이 열의와 열정을 잃으면 그들이 관리하는 단체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최악의 일은, 단원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버린 그 상태에 만족해버림으로써,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치유될 가망도 없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직무 임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평의회조차도 소속 브레시디움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적으로 임기 연장을 반복해서 허가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능력이나 사정에 개의치 않고 간부들을 교체하는 제도일 것이다. 레지오는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수도회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였다. 즉, 첫 번째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연임 요청이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임을 허락한다는 규정에 따라, 간부 임기를 총 6년으로 제한한다.”(간부 임기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레지오의 결의)

13. “나쁜 장교가 있을 뿐, 나쁜 사병은 없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사병은 장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레지오 단원들도 간부들이 불어넣어 주는 정신과 활동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부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선발되어야 한다. 일꾼이 응분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레지오 단원들도 훌륭한 간부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훌륭한 간부들이 대대로 임명된다면 브레시디움의 질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왜냐하면, 새로이 간부들이 임명될 때마다 자기 브레시디움을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힘쓰면서도,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여하여, 브레시디움의 기틀을 차례차례 쌓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4. 특히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단장을 잘못 임명하게 되면 브레시디움이 무너질 수도 있다. 각 후보자를 제34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장의 자격 요건에 비추어 검증한 후가 아니라면 단장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격 요

건을 갖추지 못한 단원은 비록 다른 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단장으로 선발되어서는 안 된다.

15. 쿠리아에서 문제 있는 브레시디움을 개편할 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브레시디움이 잘못되는 원인은 단장이 직무를 게을리 했거나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6. 수련 중에 있는 단원은 성인 브레시디움에서 오로지 간부 대행 또는 임시 간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수련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직무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면, 선서와 동시에 정식 간부가 되며, 이미 봉사한 기간은 앞서 언급한 3년 임기의 일부로 계산한다.

17. 한 단원이 다른 브레시디움으로 소속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현 브레시디움 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입하는 브레시디움에서는 정관과 새 단원의 입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며, 다만 수련기와 선서는 필요치 않다. 브레시디움을 옮기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 그 허가를 이유 없이 보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쿠리아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8. 브레시디움 단장은 다른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단장과 간부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브레시디움에 설명할 의무는 없다.

19. 쿠리아는 브레시디움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해당 단원은 쿠리아의 직속 상급 통치 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직속 상급 통치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20. 브레시디움 사이에 활동 분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쿠리아가 판정한다.

21. 브레시디움이 주변에 굳건한 협조단원들을 조직하고 돌보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우수한 장교의 지휘 아래 용감하고 완벽하게 훈련된 무장한 병사들의 충천하는 사기를 보라! 하지만 장병들의 용맹성만으로는 이 부대의 힘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없다. 매일매일 탄약과 식량, 피복, 의료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만일 이런 지원이 끊어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도 과연 며칠이나 전선에서 버틸 수 있겠는가!

보급 부대와 전투 부대 사이의 관계는 협조단원과 브레시디움 사이의 관계와 같다. 협조단원은 레지오 조직의 한 부분이며, 협조단원이 없는 브레시디움은 불완전한 브레시디움이다.

협조단원을 돌보는 데에 적합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회람을 만들어 돌리는 것만으로는 이 중요한 의무를 충실히 채우지 못한다.

22. 군대는 각종 훈련소나 군사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장래에 항상 대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성인 브레시디움에서도 소년 브레시디움을 운영하는 것을 그 조직 체계의 필요한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 두 명의 성인 단원을 소년 브레시디움의 간부로 파견하는데, 소년 단원들을 지도하려면 특별한 소양이 있어야 하므로 간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무에게나 소년 브레시디움의 간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소년 브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는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인 브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그들은 그 소년 브레시디움을 대표하여 꾸리아에 참석하며, 소년 꾸리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소년 꾸리아에 참석한다.

소년 브레시디움의 나머지 두 간부 직책은 소년 단원이 맡아야 한다. 이들은 간부직을 통하여 놀라운 만큼 책임감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소년 간부는 소년 브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소년 꾸리아에 참석한다. 그러나 소년 간부들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지 않는다.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은 여럿이지만 그 빛의 근원은 하나이다. 나무의 가지는 많지만 그 줄기는 하나이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단단히 매어 있다.”(성 치프리아노 St. Cyprian : 교회의 일치)

제15장 레지오의 선서문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저(성명과 세례명)는(은)
오늘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당신 힘으로 받쳐 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오셨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 없이는 당신을 알아 뵈올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음을 아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재능과 성덕과 은총을 내려 주시으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때에,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만큼,
성모 마리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고 계심을 제가 아옵니다.
또한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당신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선서하는 단원은 이때 백실리움 깃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지금 성모님의 병사요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하나이다.
성모님은 제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오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다시 사뢰오니,
당신은 성모님을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 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티 없이 되신 성모님 안에서 저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도 자라시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다 드리게 해주시고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긴 다음 성모님과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의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겠나이다.
저는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또한 성모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의 대열을 가다듬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은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지오의 선서는 성령께 바쳐야 한다는 점을 지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가톨릭 신자들이 성령께 드리는 신심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성령께 각별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 레지오 단원이 펴는 활동, 즉 자신과 그리스도 신비체의 다른 모든 지체들을 성화시키는 일은 성령의 권능과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성령과 일치해야 한다. 이 일치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께 대한 깊은 공경과 성령과 불가분의 일치를 이루어 일하시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다. 성령께 관한 많은 책과 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대한 참된 신심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까닭은 성령께 대한 신심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미 그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 단원들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성령께 대한 확고한 신심과

결합시킨다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업에 성령과 성모님이 일치하고 협동하기를 바라셨던 하느님의 계획에 가장 완전하게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 단원이 기울이는 수고에는 언제가 힘과 성공이 놀라우리만큼 추가로 주어질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이 맨 처음 바친 기도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바친 기도였고, 그 다음의 묵주기도였다. 그 후 오늘날까지 모든 레지오 회합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기도를 바치고 있으므로, 레지오 단원으로서 출발하는 입단식도 이처럼 성령의 주관하에 거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입단식은 성령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사도직 은총을 내려주셨던 성령 강림을 연상시켜 준다.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찾으려 애쓴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은총 가운데 하나는 성모님께 대한 참으로 정통한 사랑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레지오의 선서문은 레지오 단기에 나타나 있는 레지오 신심과 잘 어울리고 있다. 단기에는 비둘기 모상의 성령께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레지오와 그 사업을 성모님을 통하여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다.”(레지오 마리아에 콘칠리움 제88차 월례회의 회의록에서)

[위 인용문은 레지오 단원 입단 선서문의 일부가 아님]

제16장 일반 행동 단원 이외의 단원 등급

레지오에는 일반 행동단원 외에 다른 두 등급의 단원이 있다.

1. 프레토리움 단원

프레토리움 단원(Praetorian)이란 일반 행동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을 말하는데, 단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신심 행위를 추가로 실천한다.

- (1) 뻬세라(Tessera)에 실린 모든 기도를 매일 바친다.
- (2)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그러나 매일 미사와 영성체 의무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서 프레토리움 단원이 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 같은 의무를 엄격히 지키는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고 프레토리움 단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3) 교회가 승인한 일과(日課 Office) 가운데 하나를 매일 바친다. 특히 시간전례(성무일도)나 그 주요 부분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바쳐도 되고, 혹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와 함께 끝기도를 싣고 있는 소성무일도(성모소성무일도)를 바쳐도 된다.

간혹 묵상이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일과를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위대한 공식적 기도 행위에 레지오 단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프레토리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레지오 단원의 활동은 교회의 공식적 사도직에 참여하는 일이다. 프레스비디움 단원 자격은 그 단원이 교회의 공동생활에 훨씬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연히 미사와 영성체는 의무적이다. 미사와 영성체는 교회의 중심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숭고한 행위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전례에서는 미사 다음으로 시간전례(성무일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시간전례(성무일도)는 교회가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 시편을 바탕으로 하는 일과(Office)라면 어느 일과에서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기도를 바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성부께서 들으셔야 할 공동의 소리에 더 가까워진다. 이 점이 바로 프레토리움 단원에게 묵상이 아닌 시간전례(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린(Leen) 대주교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말했듯이 “은총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사랑

도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만일 시간전례(성무일도) 전체를 바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단원이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 행위는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가) 쁘레토리움 단원은 레지오 마리에 단원의 한 등급일 따름이며 결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그러므로 쁘레토리움 단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뽀레시디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나) 쁘레토리움 단원 자격은 단원 자신의 개인적인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다) 쁘레토리움 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윤리적인 강요를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쁘레토리움 단원 자격을 갖도록 권고할 수 있고 또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단원의 이름을 말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 해서는 안 된다.

(라) 쁘레토리움 단원은 별도로 마련된 뽀레토리움 단원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자격을 얻는다.

(마) 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뽀레토리움 단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뽀레토리움 단원들이 기사도적 정신으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만일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뽀레토리움 단원 명부에 올리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레지오 간부로서의 자격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뽀레시디움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될 것이며, 이는 그 뽀레시디움의 뽀레토리움 단원 증가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지오가 쁘레토리움 등급의 단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뽀레토리움 제도는 단원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에, 이 제도는 레지오 조직 안에 일종의 ‘기도하는 심장부’를 만드는 것을 뜻하고 이 심장부로 점차 더 많은 단원들이 들어올 것이다. 더 많은 단원들이 기도 생활에 몰두하게 되면 레지오의 영적 혈액 순환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레지오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기도에 의탁하는 정신이 자라나게 된다. 이로써 레지오는 자신의 으뜸이요 진정한 목표가 단원들을 영성화하는 데에 있음을 어느 때보다 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성장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것이 그대의 운명이며 가톨릭 신자의 필수적 요소이다. 성장은 또한 사도직을 물려받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성장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가톨릭 신자의 현 위치)

2. 협조단원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 봉사를 말씀으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협조단원의 자격은 다음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 기초 등급 : 이 등급의 단원들은 단순히 협조단원이라 부른다.

(나) 상위 등급 : 이 등급의 단원들은 더 구체적으로 아듀토리움 단원(Adjutorian)이라 부른다.

협조단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협조단원의 기도 봉사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봉헌할 필요는 없고,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을 기리며 봉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레지오가 협조단원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다른 곳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협조단원이 바치는 기도 봉사는 근본적으로 레지오의 봉사인 만큼, 레지오의 모후께서 레지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 믿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협조단원의 봉사와 레지오가 수행하는 그 밖의 다른 모든 봉사를 아낌없는 선물로 성모님께 바쳐드려 성모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헌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봉사는 더욱 너그러워질 것이며 봉사의 가치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기 위하여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와 같은 봉헌 기도를 매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에게 이 두 등급의 협조단원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협조단원들을 많이 두게 되면 두 날개를 넓게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충실히 바치는 기도로 규칙적인 추진력을 얻어 힘차게 날갯짓할 수 있다. 그러한 레지오는 초자연적인 이상과 노력이라는

더 높은 창공으로 솟아오를 수 있다.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재빠르게 갈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산도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두 날개가 접한다면, 볼품 없이 뒤뚱거리며 천천히 땅 위를 기다가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완전히 멈춰 버리고 말 것이다.

기초 등급 : 협조단원

단순히 협조단원이라고 불리는 이 기초 등급의 단원들은 레지오 기도 군단의 한쪽 날개이다.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을 바친다. 즉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呼禱)와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 5단과 그 뒤를 잇는 호도, 그리고 까떼나를 바친 다음 마침 기도로 끝맺는다. 이 기도는 사정에 따라 하루 중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바칠 수도 있다.

이미 어떤 지향을 두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협조단원이 된 후 추가로 묵주기도를 더 바칠 의무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돕는다. 그는 자신이 믿고 알고 의도하는, 영혼 하나를 구원해주는 강력한 자석(磁石)을 사용하여 자기 형제들을 돕는다. 그는 바로 성인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행하라고 요구한 기도, 간구, 감사 행위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보충한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에페 6,18 참조) 만일 당신이 세상만사를 경계하지 않고 강력하게 고집하지 않으며 고군분투하지 않고 꼭 붙들지 않는다면, 만사가 느슨하게 되어 세상은 다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어느 정도씩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과 경계하는 일을 그만 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그라트리 Gratry : 원천)

상위 등급 : 아듀토리움(Adjutorium) 단원

이 등급의 협조단원은 기도하는 레지오 군단의 다른 쪽 날개이다. 아듀토리움 단원은 다음과 같은 신심 행위를 한다.

(가)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매일 바친다.

(나)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또한 교회가 승인한 일과(시간전례 혹은 소성무일도)를 바친다.

일과(시간전례나 소성무일도)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는 ‘쁘레포리움 단원’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듀포리움 단원과 일반 협조단원의 차이는쁘레포리움 단원과 일반 행동단원의 차이와 같다. 그러므로 아듀포리움 단원에게 추가되는 의무 또한쁘레포리움 단원과 동일하다.

아듀포리움 단원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서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속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일과(시간전례나 소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없는 수도자의 경우에는 아듀포리움 단원이 된 후에도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아듀포리움은 단원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해 주므로, 일반 협조단원이 아듀포리움 단원으로 등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쁘레포리움 단원 부분에서 레지오 단원이 교회의 기도에 결합된다는 것과 일과(시간전례나 소성무일도)의 특별한 가치에 대하여 말했던 내용은 아듀포리움 단원에게도 적용된다.

레지오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아듀포리움 단원으로 등록해 주기를 특별히 호소하면서 그들과 결합되기를 진정으로 염원한다. 축성된 신분을 살고 있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기도 생활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생활을 살도록 위임받은 자들이며,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생산해내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발전소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영적 발전소에 효율적으로 연결된다면, 레지오 조직은 누를 수 없는 힘으로 힘차게 고동칠 것이다.

사제나 수도자들이 아듀포리움 단원이 되는 경우, 이미 바치고 있는 성무일도 외에 추가되는 의무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 까페나와 레지오의 기도문, 그리고 호도 등 불과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기도들이 고작이다. 그러나 레지오와 유대를 맺음으로써 그들은 레지오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레지오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일찍이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는 “나에게 지렛대와 받침목을 주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레지오와 하나된 아듀포리움 단원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거룩한 기도라는 기다란 지렛대를 올려놓을 그 중요한 받침목을 레지오에서 발견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되어 전 세계의 짓눌린 영혼들을 들어 올리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치워버릴 것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를 확정적으로 세우신 그 다락방에서, 성모님께서는 이후

로도 영원히 은밀하고 내밀하게 계속해서 수행하시게 될 당신의 역할을 함께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 한 가운데에서 가시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셨다. 그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 안에 일치시키고 당신의 전능한 중재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4)”(뮈라 Mura : 그리스도 신비체)

협조단원들이 알아 두어야 하는 일반 사항

(1)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봉사하자. 레지오는 두 등급의 협조단원들에게 협조단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봉사의 최대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최저치로 생각한다고 간청한다. 그리하여 이 최저치를 보충하겠다는 특별한 지향을 두고 많은 기도와 활동을 용기 있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사제인 아듀포리움 단원들에게는 성모님의 의향과 레지오를 위하여 모든 미사 때 특별히 기억하고, 이 지향으로 때때로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제안한다. 그 밖의 협조단원들도 미사 예물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따금 성모님의 의향과 레지오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것이다.

협조단원들이 레지오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백 배, 천 배, 백만 배를 되돌려 받는다. 그것은 레지오가 행동단원들에게만이 아니라 협조단원들에게도 성모님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성모님의 군사로서 복무하도록 해주며, 성모님을 올바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은총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백만 배’라는 인간의 말로는 그 이득을 올바로 표현할 수가 없다. 협조단원들은 이 은총의 힘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영성 생활로 들어 올려지고, 이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

(2) 성모님이 내리시는 이러한 선물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레지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동시에 온 세상의 모후이시며, 세상 모든 분야의 일과 사건을 관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께 무엇인가를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우리의 기도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3) 이처럼 당신 손에 맡겨진 은총의 창고를 맡아 관리하실 때에 티 없으신 성모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임무 그리고 의무 수행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유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가 있다. “협조 단원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성모님께, 연옥 영혼들에게 또는 선교 사업에 내가 가진 것을 몽땅 털어 바쳤다. 이제 레지오를 위해서 드릴 만한 몫이 남아 있지 않으니 협조단원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대한 레지오의 대답은 이렇다. “당신처럼 헌신적인 사람을 얻었다

는 것만으로도 레지오로서는 큰 은총이다.” 사실 레지오를 도우려는 애타는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추가적인 기도요, 당신이 매우 순수한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하느님의 보고(寶庫)를 관리하는 무한히 너그러우신 성모님께는 물리칠 수 없는 청원이 된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레지오에 참여한다면 성모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를 바칠 때 지녔던 지향은 조금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향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모님은 우리가 봉헌한 영적 보화를 활용하시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로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자신도 기묘하리만큼 더 풍요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놀라운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다. 성모님의 중재는 일종의 가윗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 성과는 놀라우리만큼 배가되었다. 이를 두고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은 ‘은총의 비밀’이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선행이 성모님의 손길을 거치면 더욱 순수해져서 결과적으로 그 공로가 커지고 속죄와 청원 가치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정결하고 너그러운 손길을 거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게 된다.”

모든 생명은 이같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시어 높은 이자를 매기신 다음 그것을 가지고 일을 완수하신 후 더 크게 불려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우리는 이 놀라운 힘을 충실한 협조단원이 성모님께 드리는 바로 그 선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4) 성모님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런데 당신이 가진 이러한 힘을 레지오에게 조금만 주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레지오가 접촉하는 영혼들 대부분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에게 것처럼 중요하고 협조단원 본인들에게도 것처럼 가치 있는 협조단원 봉사에 자기 벼들을 입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조단원들은 레지오 단원들과 결합하여 레지오의 모든 기도와 활동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5)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되어 기도하는 병사가 되면 행동 단원들과 똑같은 상상력을 품게 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칠 생각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미 뗏세라에 상세하게 적힌 모든 기도를 날마다 바칠 것을 요구하는 협조단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그 밖의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낙담한 채 살던 많은 사람들이 협조단원에 가입함으로써 삶의 흥미를 얻게 되었다. 다른 한편, 종교를 판에 박힌 일상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환경에서 살던 많은 주민들도 자신들이 교회에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우연히 접하는 레지오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자신들이 레지오에 대하여 일종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레지오가 가장 먼 곳에서 벌이고 있는 영혼들을 얻기 위한

싸움에 자신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며, 레지오가 자신들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각지에서 영혼들을 위해 레지오가 행한 고귀하고 흥미진진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서, 단조롭던 그들의 삶은 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전율을 느낀다. 자신들이 일종의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식, 바로 그와 같은 가장 고무적인 생각이 그들의 존재를 바꾸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이와 같은 상상력의 자극은 필요한 법이다.

(6) 빠레시디움은 주변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협조 단원으로 입단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지오의 다른 여러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좋은 터전이 마련된다. 협조단원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교 방문을 하면 대개의 경우 상당한 호응을 얻는다.

(7) 다른 가톨릭 단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조 단원으로 끌어들이 수만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한데 묶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됨으로써 성모님의 주관 아래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협동하며,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고유 활동이나 특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며, 협조단원으로서 이들이 바치는 기도도 결코 소속 단체와 동떨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협조단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아닐지라도 매일 레지오의 모든 기도를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에게 뗏세라를 주고 그 넓은 마음씨를 격려해 주며,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분명히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9) 협조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한다. 그러나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한다기 보다는 전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협조단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즉, 협조단원들은 비록 일선 전투 대열에 속해 있지 않지만, 마치 탄약 공급이나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조단원이 없으면 레지오의 전투 능력은 그만큼 약해져, 전쟁에 질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10) 너무 가볍게 협조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먼저, 협조단원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선 후에 입단시킨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1) 협조단원이 기도 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가) 먼저, 기도 봉사의 질을 개선시키며 꾸준히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나) 그런 다음, 레지오의 활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돌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아듀포리움 단원이나 행동단원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12) 협조단원들이 단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레지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그들과 계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협조단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협조단원들이 현재 해야 할 의무보다 더 멀리까지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분명 훌륭한 활동의 기회가 될 것이다.

(13) 모든 협조단원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 회 회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 주어야 한다. 협조단원은 로사리오 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묵주기도(기도?)를 이미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름을 등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가 추가되지 않는다.

(14)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예비군인 협조단원을 온전히 육성하려면, 적어도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the True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즉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성모님께 봉헌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아마도 많은 협조단원들은 하늘의 보화를 관리하도록 이미 하느님의 명을 받으신 성모님께 자신의 영적 보화를 기쁜 마음으로 맡기려 할 것이다. 성모님의 의향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성심을 받드는 것이므로, 성모님께 바쳐진 그 어느 것도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성모님은 교회가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사도직과 모든 세계를 지향하신다. 그뿐 아니라 성모님의 지향은 연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내려간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열성을 다하여 돕는 일은 결국 주님의 몸체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아 드리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나자렛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자상한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느님의 뜻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각자 제멋대로 나아간다면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므로, 과연 언제쯤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은 영성이 깊은 사람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즉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성인이 묵주기도와 성모 신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 막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기억이 흐려져 교리의 기초 진리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었다는 점이다.

(15) 협조단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직체를 만들어 주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는 실제로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조직망을 갖추게 되면 레지오의 사도직 활동과 기도의 이념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오래지 않아 공동체 전체가 레지오의 이념을 실천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16) 협조단원들로 ‘형제회’(Confraternity)를 만든다면, 이는 여타의 형제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나, 추가로 레지오의 따뜻함과 색채를 띤 레지오 단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면 그 구성원인 협조단원들이 레지오의 정신과 레지오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어 더욱 열심히 기도를 바칠 것이다.

(17) 모든 협조단원들을 빠뜨리치안회에 가입시키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두 조직은 서로 이상적으로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빠뜨리치안 회합은 협조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며, 그들이 레지오와 꾸준히 접촉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빠뜨리치안 회원이 협조단원으로 가입한다면, 그들 역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지는 신앙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8) 협조단원에게 통상적인 레지오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협조단원들을 활동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언뜻 보기에 매력적이다. 그들을 활동으로 이끄는 일도 좋은 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레지오 회합을 갖지 않고 레지오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단원에게 필수적인 조건을 무시한 채 레지오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9) 협조단원들도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 행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아치에스는 그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행사가 될 것이며, 동시에 행동단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봉헌 행위를 할 준비가 된 협조단원은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

(20) 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호칭 기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

(21) 레지오는 행동단원들에게 ‘영혼들을 위해 언제나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협조단원들에게도 해당된다. 즉, 행동단원과 마찬가지로 협조단원도 다른 신자들을 레지오 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고리(행동단원)와 고리(협조단원)가 연결됨으로써 까페나 레지오니스(Catena Legionis), 즉 레지오의 고리는 전 세계를 에워싸는 가장 좋은 기도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22) 시각 장애인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 또는 어린이들도 협조단원이 되어 쉽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줄이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그런

데 의무라는 것은 확고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구속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 번 변경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경을 불러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도문을 바꾸는 일이 다반사처럼 되어, 심지어는 조금밖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 또는 아주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마저 생기지 않겠는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가 바라는 것은 레지오의 기준에 맞는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맞는 봉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협조단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레지오 밖에서 나름대로 레지오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레지오의 사업에 대단히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행동단원들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23) 협조단원에게 뗏세라나 회원증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단원 자격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회비도 징수할 수 없다.

(24) 협조단원 명부에는 아듀포리움 단원과 일반 협조단원으로 구분하여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 명부는 브레시디움에서 보관하며, 꾸리아 간부나 꾸리아가 지명한 방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하도록 한다. 열람자는 명단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새로운 단원을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지, 기존 협조단원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이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루카 9,62 참조) 않도록 확실히 돌보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5) 협조단원은 브레시디움의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자격을 얻는다. 협조단원 명부는 부단장이 관리한다.

(26) 협조단원 후보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 기간 동안 임시 명부에 올렸다가, 수련 기간이 끝나고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브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

“착한 일을 해서 쌓은 우리의 모든 공로를 성모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의 선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어떻게 갚아 주실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적이고 현세적이며 사라 없어질 재산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서 백배나 갚아 주신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내적이고 영적인 보화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에게는 과연 그 백배의 은총이 얼마나 크겠는가?”(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St. Louis-Marie de Montfort))

제17장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세상에서 싸움이 끝나면 레지오 단원은 고귀한 죽음을 맞이한다. 마침내 단원으로서 그가 해 온 일들을 확인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레지오가 그에게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그 영원의 세상에서도 레지오 단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레지오는 그에게 영생 생활의 바탕이요 거푸집이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이 “저희 레지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하며 날마다 열심히 바치는 기도의 힘으로, 그는 한 평생 먼 길을 온갖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단원들에게나 남아 있는 모든 단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그러나 지금 당장은 친구와 동료로 잃은 슬픔을 겪고 있으며, 세상을 떠난 우리 전우가 한시라도 빨리 연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쳐야 한다.

쁘레시디움은 행동단원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을 위해 지체 없이 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또한, 단원들은 먼저 떠난 동료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적어도 한 번은 특별히 바쳐야 한다. 그러나 단원 가족이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도의 의무는 없다. 해당 뿌레시디움뿐 아니라 다른 뿌레시디움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단원들이 장례 미사에 참례해야 하며 세상을 떠난 단원을 동반하여 장지까지 가야 한다.

장지에서의 모든 예절이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와 그 밖의 다른 레지오 기도문을 바친다. 이러한 레지오의 기도는 교회의 공식 하관 예절에 바로 뒤이어 바칠 수 있다. 장지에서 바치는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는 세상을 떠난 이에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과 레지오 단원 자신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고인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입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신 곁에서 레지오의 기도문을 바치게 되지만, 이렇게 예절중에 바치는 기도만으로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추모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원들은 그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야 한다.

매년 11월 위령 성월에 모든 뿌레시디움은 자기 뿌레시디움만이 아닌 전 세계의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상을 떠난 단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원 구분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행동단원과 모든 협조단원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연옥도 마리아 왕국의 일부이다. 연옥에도 성모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욕고 사라질 고통을 참아 받으며, 영원히 계속될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빈첸시오 페레리오,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루도비코 볼로와 등 많은 성인들은 성모님이 연옥의 모후이심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특히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러한 믿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보속의 공로를 성모님의 손에 맡겨 드릴 것을 당부한다. 그렇게 성모님께 우리 기도를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직접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루모 Lhoumeau :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의 영성 생활)

제18장 브레시디움 회합의 순서

1. 브레시디움 회합의 차림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

탁자의 한쪽에 작은 제대를 차려 놓고 단원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는다. 제대 차림은 넉넉한 크기의 흰 보를 깔고 그 위에 은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모습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신다. 성모상의 높이는 약 60cm라야 하며, 그 양 옆으로 꽃병 두 개와 불을 켜 촛대 두 개를 각기 하나씩 갈라 놓고, 성모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앞쪽 오른쪽에는 벅실리움을 세워 놓는다. 벅실리움에 관해서는 제2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대의 차림새의 사진은 이 교본의 176쪽과 177쪽(이후 페이지 확인 필요) 사이에 실려 있다.

성모상은 모후께서 당신을 따르는 군사들의 한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므로, 제대를 회합 탁자로부터 분리시켜 차린다거나, 둘러앉은 단원들의 바깥쪽에 별도로 차려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의 기물과 꽃은 되도록 좋은 것으로 장만해야 한다. 기물을 장만하는 비용은 한 번의 지출로 끝이 난다. 어떤 이의 기증이나 그 밖의 다른 우연한 기회에 은으로 만든 꽃병이나 촛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원들은 벅실리움과 꽃병과 촛대 등을 늘 깨끗하게 간수하고, 브레시디움의 비용으로 꽃과 초를 알맞게 장만하는 일을 자랑스런 의무로 여겨야 한다.

생화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녹색을 띤 산 나뭇잎을 곁들여야 한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투명 유리로 된 컵이나 등근 갓을 초의 위 부분에 씌울 수 있으나 초 자체의 모습을 가려서는 안 된다.

탁자에 까는 흰 보에는 Legio Mariae(레지오 마리아)라는 글자를 새겨 넣을 수는 있으나 브레시디움 이름을 새겨서는 안 된다. 구별보다는 일치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리아의 중재는 그분의 모성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비록 마리아의 중재 또한 참여하는 중재이지만, 다양하고 종속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참여하는 다른 피조물들의 중재와는 구별되는 모성적 특성을 지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피조물도 강생하신 말씀 곧 구세주와 결코 똑같이 헤아려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지만, 동시에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유일한 선성이 피조물들 안에서 실제로 갖가지 모양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38항)

2. 정해진 시각에 회합을 시작한다

단원들은 정해진 시각에 어김없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 회합을 시작해야 한다. 회합의 정시 시작은 브레시디움의 능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간부들이 미리 와서 필요한 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브레시디움도 ‘**활동 계획서**’라고 하는 기록된 사전 계획 없이 회합을 시작할 수 없다. 브레시디움 단장은 매번 회합에 앞서 이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계획에 따라 활동을 배당해야 한다. 단장은 이 계획서에 브레시디움이 추진하는 모든 활동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오른쪽에 활동을 배당받은 단원의 이름을 기입한다. 활동을 종류별로 매번 회합 때마다 똑같은 순서로 다룰 필요는 없으나,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였더라도 한 사람씩 호명하여 각자 별도의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단장은 회합이 끝나기 전에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 주간에 해야 할 활동을 **반드시** 배당해야 한다.

단장은 매주 계획하고 배당한 활동들을 한데 묶어 보관하는 활동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열렬하고 매력적인 이상(理想)일지라도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감동을 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냐시오 성인의 천재성은 신앙의 힘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활용한 데 있었다. 증기는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동력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영적 열성들이 주의 깊게 검토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덧없이 허비되고 있는가!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동차를 폭발시킬 수도 있으나,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면 자동차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알프레드 오래힐리 몬시뇰 Msgr. Alfred O’Rahilly :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3. 회합 시작

회합의 시작은 성령께 드리는 호도(呼禱)(호칭 기도)(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기도로써)와 기도로써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과 생명과 사랑의 샘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은총을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심을 믿으며 기뻐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안드님을 태중에 잉태하신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일종의 권위나 관리권을 지니게 되셨다. 그리하여 성모님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성령께서 내리시는 모든 선물과 덕성과 은총은 성모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모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모님을 통하여 베풀어지고 있다.”(성 베르나르디노 St. Bernardine : 예수 성탄에 관한 강론 중에서)

[주 : 윗글의 뒤쪽 부분과 거의 같은 내용이 베르나르디노 성인보다 200년 전에 살았던 대 알베르토 성인(St. Albert the Great)의 글(Biblia Mariana, Liber Esther I 에도 쓰여 있다.)]

4. 목주기도 5단을 바친다

1단, 3단, 5단은 영적 지도자가 선창하고, 2단과 4단은 단원들이 선창한다. 목주기도를 소리내지 않고 바치는 단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모상이 놓인 그 자리에 성모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는 모습으로 실제 서 계시는 것과 같이 여겨, 엄숙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목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성모송을 바칠 때, 전반부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후반부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경건히 불러야 한다. 목주기도는 규정에 의하여서든 권고에 의하여서든 레지오 단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각 단원은 로사리오 회(the Rosary Confraternity 부록 7 참조)에 회원으로 등록하기를 바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목주기도가 반드시 잘 보존되어야 할 기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기도는 순수한 기도이며 뚜렷이 성서적이다. 목주기도에는 구원의 전 역사가 효과적으로 집약되어 있으며, 그 역사 안에서 성모님이 맡아 하였던 모든 다양한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도드리는 여러 방법 중에서 묵주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성모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공경을 한데 모아 놓고 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악을 치료해 주며 또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교황 레오 13세)

“모든 기도 가운데 묵주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열심히 바치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니, 이로써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교황 비오 10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서가 성경 가운데 으뜸이며, 묵주기도는 실제로 복음서를 요약해 놓았다.”(라코르데르 Lacordaire)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단 하나의 기도 안에 합쳐진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성 토마스 데 아퀴노 St. Thomas de Aquino : 마태오 복음 18장에 대하여)

5. 묵주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영적 독서를 한다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가 낭독하며, 불참시에는 단장이 대신한다. 영적 독서의 길이는 5분 정도로 제한하며,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빠르게 시디움 설립 후 초기 몇 년 동안은 교본을 영적 독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단원들 교본의 내용에 좀 더 익숙해지고, 교본을 진지하게 공부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영적 독서가 끝나면 관습상 단원들은 함께 성호를 긋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마리아께서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바로 그 사실(‘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만으로도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마리아께서는 특별히 이미 주님 탄생 예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속에 간직하며’(루카 1,38.45; 2,19.51 참조) 당신의 전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 합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행복이 군중 속의 여인이 말한 행복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주님의 종’(루카 1,38)일 뿐이라고 부르신 동정 성모님의 인격 안에 있는 행복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20항)

6. 전주(前週) 회의록을 낭독한다

앞선 회합의 회의록을 낭독한 후 출석한 단원들의 승인을 얻으면 단장은 서명한다. 회의록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알맞은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며, 각 회합마다 일련번호로 차수를 매긴다.

회의록의 중요성은 서기의 임무라는 항목에서 강조되고 있다. 회의록 낭독은 회합의 진행 순서 중 가장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테면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회의록 작성 요령과 낭독 방법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훌륭한 회의록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정성이 부족한 조잡한 회의록은 나쁜 본보기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기록된 회의록이라 해도 서툴고 분명치 않거나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낭독된다면 나쁜 회의록이 되고 만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회의록 낭독이 단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정신 집중과 보고 방법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회의록 내용과 낭독 방법이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따라 회합 진행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회합의 질적 수준이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하며, 뻘레시디움 역시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점들을 바르게 보살펴야 한다.

“만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루카 16,8)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서 입증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매우 부지런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받을 것과 줄 것을 세심하게 따져 보고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며, 손해를 보면 매우 안타까워하여 이를 메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교황 비오 10세)

7. 상 훈

아래 적힌 상훈(常訓)은 활동 계획표 안에 함께 적어 넣거나 별도로 간직하여, 낭독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훈은 매월 첫 번째 회합에서 단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마친 직후 낭독한다.

- 상 훈 -

단원이 지켜야 할 레지오의 의무는 :

첫째, 브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알맞고 또렷한 보고를 한다.

둘째,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셋째, 믿음의 정신으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금 뵙고 섬기시듯이 한다.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사항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나는 나의 사도직 활동과 끊임없는 기도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성모님은 그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성모님과 온전히 일치한다면, 성모님은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어 넘쳐흐르는 시냇물을 닦게 하시고, 이러한 나는 다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성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기쁨에 넘치게 하실 수 있게 된다. 비단 내 자신의 영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드 야아헬 De Jaegher : 신뢰의 미덕)

[이 인용문은 상훈의 일부가 아니므로 상훈과 함께 낭독하지 않는다.]

8. 회계 보고

회계는 브레시디움의 수입과 지출 및 잔고를 매주 브레시디움 회합에서 보고해야 한다.

“때때로 자금이 부족하여 영혼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금 지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도직에 대한 더욱 완전한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제임스 멜레신부 James Mellett, C.S.Sp.)

9. 활동 보고

단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활동 보고를 한다. 활동 보고는 수첩에 기록해 놓은 활동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구두로 해야 한다.

브레시디움은 단원이 활동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단원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활동도 없고 해명도 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인상을 풍겨, 동료 단원들에게 좋지 못한 본보기만을 남기게 된다.

단원들이 어느 정도 진지한 태도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브레시디움 회합이 단원들의 변명을 듣는 분위기로 변하게 되면, 모든 단원들의 열성과 규율은 곧 시들고 만다.

활동 보고를 할 때에는 단장만을 향해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동적으로 말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 알맞도록 조절되어 그 이상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장 한 사람만을 향해 보고하게 되면 자연히 말소리가 작아지므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단원들은 알아듣기 힘들게 된다.

활동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토의는 회합 장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말해야 한다. 아무리 충실한 보고라 하더라도 참석한 단원들 가운데 여러 단원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회합 진행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 보고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암전하거나 겸손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느 누가 감히 성모님보다 더 겸손하며 암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모님이 조그만 소리로 우물거

리거나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레지오 단원들이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본받자.

단장은 알아듣기 힘든 보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 단장 자신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단장의 어조(語調)는 그 회합의 어조를 결정짓게 마련이다. 단원들은 대개 단장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므로 단장이 그저 보통 대화하는 어조로 말하면 단원들의 활동 보고는 속삭이는 어조로 떨어지고 만다. 단장이 부드럽게 말하는데 어떤 단원이 혼자 큰소리를 낸다면,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른다는 느낌이 들어, 결국 그 단원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단장을 비롯한 모든 단원이 큰 목소리로 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마치 의사가 처방을 내리듯, 모든 단원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 브레시디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활동 보고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와 보고는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 브레시디움 회합에서 핵심을 이룬다.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브레시디움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를 통해서 각 단원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표현하여, 보고를 듣는 다른 단원들이 마음속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논평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할 때에는 어떤 활동을 시도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소요된 시간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달성하지 못한 활동은 무엇이며, 아직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등의 내용도 밝혀야 한다.

회합 분위기는 밝고 명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는 회합에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합이 너무 지루하면 브레시디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브레시디움이 젊은 단원들을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활동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훌륭한 보고를 하기가 쉬운 반면, 어떤 보고는 너무 단순하여 다양한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해도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파악해 두었다가 보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활동 보고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판에 박은 듯한 보고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고는 그 단원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그 단원이 의무를 게을리 하도

록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뿌레시디움으로 하여금 단원들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한 레지오의 기본 사상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뿌레시디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활동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레지오의 활동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회합에서 단원들의 노고를 세심하게 이해해 주고 북돋아 주지 않으면 단원들은 점차 몸을 사리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은 힘닿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 보겠다고 레지오에 입단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아마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반감을 갖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경우들일 것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주로 회합을 통하여 단원들이 이러한 본성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실제 활동 상황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뿌레시디움은 단원의 활동에 대해 단지 막연한 감독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뿌레시디움은 단원을 제대로 격려할 수도 안전하게 지켜 줄 수도 없게 된다. 결국 그 단원은 뿌레시디움의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처럼 중요한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올바른 단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지오의 규율의 손길이 단원들에게 미치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잘못된 보고는 다른 단원들까지도 쉽게 이를 따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렇게 된다면, 레지오에 진실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단원이 실제로는 레지오에 비극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은 훌륭한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좀더 높이 세우고 완벽한 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뿌레시디움에서 모범적인 보고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 수행 방법뿐만 아니라 보고 방법까지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훌륭한 모범이야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모범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배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단원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뿌레시디움 전체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활동 보고가 회합의 전부는 아니지만, 마치 중추신경처럼 뿌레시디움의 다른 모든 업무 진행에 공감 작용을 일으켜 전체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앞서 보고할 때의 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성모님을 떠올리라고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활동 보고 시작 전에 뿌레시디움 소 제대에 모셔진 성모상을 한 번 바라보라. 성모님이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힘쓰는 단원은 어느 면에서나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일이 절

대로 없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모님을 한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지구 역사상 가장 상냥하고 온화한 여인이시라고 보지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성모님에 대하여 단지 감상적인 신심에 빠지게 하거나,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면 성모님에 대하여 거의 매력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위험마저 있다. 그들은 그토록 자상하시고 온화하신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곳곳한 불굴의 여인이시며, 또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뇌베르 Neubert : 교리로 보는 성모 마리아)

10. 까떼나

회합 진행 도중 일정한 시간에 단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까떼나(Catena Legionis)를 바친다(제22장 [레지오의 기도문] 참조). 대개 단장의 회의록 서명과 회합이 끝나는 시간 사이의 중간 시간이다(보통 한 시간 반이 걸리는 브레시디움 회합에서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난 후이다).

후렴은 참석자 전원이 합송한다.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는 영적 지도자(부재시에는 단장)와 단원들이 구절마다 번갈아서 바친다. ‘기도’ 부분은 영적 지도자(부재시에는 단장)가 혼자서 바친다.

까떼나를 시작할 때는 성호를 긋지 않고, ‘마리아의 노래’ 첫 구절에서 다 함께 성호를 긋는다. 까떼나의 ‘기도’가 끝난 후에도 성호를 긋지 않는다. 바로 이어서 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레지오에서 단원들이 까떼나를 함께 바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브레시디움이 기쁨에 넘쳐 있든 실망에 빠져 있든 혹은 판에 박은 듯한 단조로운 길을 힘겹게 걷고 있든, 까떼나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단원들로 하여금 백합이며 장미이신 성모님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여, 신기하게도 새롭고 산뜻한 분위기로 바꾸어 준다. 이것이 단순히 그림 같은 묘사가 아님을 레지오 단원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 아닌가!

“나는 마니피캣(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흔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이 찬가는 은총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가 주님 탄생을 예고한 때부터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든 세대’와 긴밀하게 결합하시고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되는 모든 이들의 운명과 함께 하신다. 이 성모님의 찬가는 성모님의 영적 모성애를 노래하고 있다.”(도미니코회 베르나르도 신부 Bernard O.P.: 성모 마리아의 신비)

“이것이 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로서,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기쁨이 어우러진 메시아 시대의 노래, 성모의 노래(루카 1,46-55)인 것입니다. 성 이레네오가 제시하였듯이,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메시아를 미리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의 환희(요한 8,56 참조)를 다시 한 번 듣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교회의 예언적인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 실제로, 마리아의 찬가는 널리 퍼져나가서 시대를 불문하고 온 교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마리아 공경』 18항)

11. 훈화(알로꾸시오) *

단원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면 영적 지도자가 짙막한 훈화(Allocutio)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화는 교본에 대한 일종의 해설 형식으로 하여 단원들이 교본에 실린 모든 내용을 마침내 완전히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 훈화의 가치는 매우 크며, 단원들을 성장시키는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지오는 단원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단원들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결국 단원들에게나 레지오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원 각자가 몸담고 있는 레지오 마리아라는 단체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교본 연구도 이러한 목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나, 훈화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교본을 주의 깊게 두세 번 읽는 것으로 교본 연구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있을지 모르나, 열 번 스무 번을 읽는다 해도 레지오가 바라는 수준의 교본 지식을 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이 교본에 담겨 있는 모든 뜻과 사상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매주 그리고 매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구두로 설명하여 점차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장이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교본이나 다른 문헌에 실린 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훈화를 철저히 하는 브레시디움과 그렇지 않은 브레시디움의 차이는 훈련된 군대와 훈련되지 않은 군대의 차이와 꼭 같다.

“나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왔다. 세상이 급격히 사악해지고 있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붙드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아직까지 당신께 충실한 사람들만이라도 더 큰 일을 해주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깃발 아래 거대한 군단을 모으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의 군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두가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헌신하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신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이들의 신비의 대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바라고 계시는 사업,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성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몬시뇰 알프레드 오레힐리 Msgr. Alfred O’Rahilly :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 ‘알로꾸시오’는 로마 군단의 장군이 부하 장병들에게 행한 연설을 일컫는 말이다.

12. 훈화가 끝난 후

모든 참석자는 성호를 긋는다. 이어서 활동 보고를 계속하거나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 뛰어나게 세련된 여성의 말솜씨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모님의 타고난 재능은 시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성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실제 시처럼 운율을 이루었다. 성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언어 예술가의 표현처럼 아름다웠다.”(로드 Lord : 현대 세계에서 성모 마리아)

13. 비밀 헌금 주머니

훈화가 끝나면 곧바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리며,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헌금한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브레시디움의 여러 가지 경비를 지불하고, 꾸리아와 그 위의 평의회에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해 두지만, 위에 말한 여러 상급 평의

회들은 브레시디움에서 보내 주는 헌금이 없다면, 레지오를 통치하고 확장하거나 지원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제35장 [기금] 참조).

헌금 때문에 회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 주머니는 눈에 띄지 않게 단원들에게 차례로 돌려야 하며, 단원은 비록 헌금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일단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

브레시디움은 적절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마련해야 한다. 장갑이나 봉투 사용은 적당치 않다.

브레시디움에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단원과 그렇지 못한 단원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밀 헌금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헌금할 때는 비밀 원칙을 존중하여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다른 단원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모든 단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브레시디움뿐만 아니라 전체 레지오 운영이 단원 각자가 비밀 주머니에 넣는 헌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금액을 헌금해 놓고 헌금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헌금을 통하여 각 단원은 더 폭넓은 레지오의 사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기금에 헌금할 때에는, 각자 책임감을 느끼며 아낌없이 봉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단원의 헌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하지만 헌금 총액은 발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부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4) 하시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 때,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셨으리라.”(오르시니 Orsini : 복되신 동정녀 전기)

14. 회합을 마칩

각 단원에게 활동을 배당하고 출석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업무가 끝이 나면, 레지오의 마침 기도와 사제의 강복으로 회합을 마친다.

브레시디움 주회합은 한 시간 반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제19장 회합과 단원

1. 회합을 존중하자

자연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힘의 전달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끊어버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 조직에서도 한 지점에서 치명적인 단절이 있을 수 있다. 레지오 단원이 회합에는 참석하지만, 앞서 레지오 생활에 관하여 묘사한 바 있는 그러한 영감과 헌신과 힘을 조금 밖에 전달받지 못하거나 전혀 전달받지 못할 수가 있다. 회합과 단원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치는 단원이 순전히 기계적으로 회합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합에 참석하는 일이 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는 순명, 충성, 존경으로 드러나며,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이 바로 이처럼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2. 뻘레시디움은 존경받도록 힘써야 한다

어떤 뻘레시디움의 수준이 소속 단원들의 평균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이는 단원들을 이끌어야 할 안내자로서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뻘레시디움에 대한 단원들의 존경심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3. 뻘레시디움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레지오 단원이 뻘레시디움을 존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 그 단원은 레지오의 생명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레지오 정신의 핵심은 최고의 수준에 오르려는 노력에 있으므로, 뻘레시디움 자체가 단원들에게서 최고의 존경을 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다시 단원들을 감화시켜야 한다. 만일 뻘레시디움이 레지오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단원들에게만 규율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회합 순서나 전반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규정대로 엄격히 따를 것을 교본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쁘레시디움은 성실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레지오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가장 열심인 단원에게까지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쁘레시디움은 다채로운 삶을 살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 단원들은 질병이나 휴가 또는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의 경우에는 모든 단원이 한꺼번에 결석하는 일은 없으므로 개별 단원의 경우와 같은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주회합을 걸러서는 안 된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도저히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옮겨서라도 주회합을 열어야 한다. 단원 대다수가 결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합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단 두세 명이라도 회합을 하는 것이 전혀 회합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물론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회합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쁘레시디움으로서의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회합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원들은 자신들이 나약함과 실수와 기타 잡다한 세속 일에 얽매어 있는 동안에도 의연하게 임무를 계속하면서 희미하게나마 교회의 주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쁘레시디움을 보게 되며, 그로써 쁘레시디움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본능적으로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난방과 조명

회합 장소는 밝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유쾌해야 할 회합 분위기가 괴로운 자리로 변해, 쁘레시디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6. 좌석 배치

단원들이 앉을 1인용 의자나 긴 의자를 마련해야 한다. 만일 단원들을 학생용 책상에 여기저기 앉게 하거나 좌석 배치를 산만하게 하면 무질서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질서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레지오의 정신이 길러지지 않는다.

7. 주회합 시간은 단원들이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단원들이 낮에 일을 하므로 회합은 대개 저녁 시간이나 주일에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저녁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단원들 형편에 맞는 회합 시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대 근무자들, 즉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이들을 단원으로 받아들여려면 주회합 시간이 서로 다른 두 브레시디움의 협력하면 된다. 이때 교대 근무자들은 비번 시간에 맞추어 두 브레시디움의 주회합에 번갈아 참석한다. 이런 단원의 출석과 활동을 바르게 지속시키기 위해 해당 두 브레시디움은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8. 회합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낸다

회합은 한 시간 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회합을 능률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회합을 마치기 위해 안건을 줄이거나 서둘러야 할 때가 자주 있게 되면, 이는 브레시디움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적신호이므로, 이때를 브레시디움의 분단을 고려해야 할 시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9. 회합 시간의 길이

회합이 적어도 몇 분 이내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도, 영적 독서, 회의록 낭독, 훈화에 소요되는 30분을 포함하여) 매번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끝나게 된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이 결석한 단원이 많아서든지, 아니면 단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서든지, 혹은 단원들의 보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제품의 판매 시장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중대한 잘못으로 단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지오 조직 역시 최대한으로 가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적 은총의 산물을 최대한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지각 또는 조퇴

기도가 시작된 후에 출석한 단원은 묵주기도 앞부분의 기도문(뗏세라의 앞 부분)과 그 뒤에 이어지는 호도(호칭기도)를 무릎을 꿇고 혼자서 소리내지 않고 바친다. 그렇게 하더라도 빠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함께 하지 못한 손실을 메울 수는 없다. 회합이 끝나기 전에 조퇴해야 할 단원은, 회합 시작 전에 먼저 단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조퇴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마침 기도(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와 그 뒤에 이어지는 호도(호칭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자리를 뜬다.

어떤 경우라도 단원이 습관적으로 늦게 오거나 조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각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활동은 했을 수 있고 그에 관한 보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합의 시작 기도나 마침 기도를 빠뜨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단원은 레지오의 참된 정신인 기도의 정신과 맞지 않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단원은 좋은 열매는커녕 해로운 열매만을 맺게 될 것이다.

11. 바른 질서는 규율의 뿌리이다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원들 안에 규율을 지키는 정신을 기른다.

- (가) 회합의 차림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나) 하나하나의 임무를 질서 있게 이어나가도록 한다.
- (다) 규정에 따라 안전을 정확히 처리한다.
- (라) 질서의 원천이신 성모님의 정신이 스며들게 한다.

이러한 규율의 정신이 없으면, 회합은 마치 머리는 명석하나 몸은 마비된 것처럼 단원들을 제지할 힘도 없고 밀고 나갈 힘도 없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을 양성할 수 없게 된다. 규율이 없다면 단원들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정한 활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혼자서 수행하려는, 즉 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적게 받으며 수행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런 성향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행한 활동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종교적인 목적에 바쳐진 규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 만일 그러한 규율이 확고하게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하지 않고 교회 권위에 진정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규율이라면,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규율임이 증명될 것이다.

레지오는 규율의 정신을 특징으로 삼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일종의 보화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레지오는 이 보화를 외부 세상에도 나누어줄 능력도 있다. 오늘날 세상은 무익하게도 억압과 자유방임의 두 극단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어지러운 현대 세계에서 레지오가 제공하는 규율의 정신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화가 아니겠는가. 내적 규율이 없는 곳에서는 전통이나 강압이 만들어낸 강력한 외적 규율이 작동함으로써 내적 규율의 결핍을 감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외적 규율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와 그 규율이 무너지면 개인도 단체도 곧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내적 규율이 그 어떤 외적 규율 체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규율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양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율이 적절한 비율로 결합되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감미로운 동기가 한데 얹히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으로 꼬인 줄”(코헬 4,12)을 갖게 된다.

12. 시간을 지키자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서는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이사 38,1)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어떤 단체가 직원들을 무질서에 젖도록 잘못 훈련한다면, 그러한 단체는 직원들을 근본적으로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더욱이 모든 올바른 교육과 규율의 바탕이 되는 단체에 대한 존경심을 없애는 것이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그리도 쉽게 제공해줄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다면, 이는 분명 ‘배를 칠하는 데 드는 몇 푼의 돈을 아끼려다가 배를 썩히고 만다.’는 속담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된다.

때때로 탁자 위에 시계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계가 회합 진행에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합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침 시간을 지킬 때만 시계를 보고, 그 외에 활동 보고나 다른 순서를 진행할 때는 전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작 기도에서부터 회합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진행 순서에 시간과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간부들이 이 점을 지키지 않으면 단원들이 충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원들 역시 잘못을 거들어 돕는 결과를 빚고 만다.

13. 기도는 정성스럽게 바치자

성급한 성격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바치는 일에서조차 침착하게 하지 않고 서두른다. 이처럼 기도를 잘못 이끌어 가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전체 쁘레시디움으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기도를 바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잘못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너무 빠르게 바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성모상이 모셔진 자리에 성모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단원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라고 단원들에게 명령하는 레지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기도는 회합과 한 덩이가 되어야 한다

회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체 앞에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친 다음, 각 쁘레시디움 회합실로 가도록 하자는 제안이 이따금씩 있었다. 회합의 일체성(一體性)은 레지오 조직 전체에 본질적인 것이다. 이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합이 일체를 이루어야만 회합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각각 기도의 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 기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영웅적인 활동과 노력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는다. 만일 기도를 주회합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바친다면, 레지오 회합은 이 기도의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도를 다른 곳에서 바치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회합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바꿔 놓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회합을 바탕으로 세워진 레지오 조직의 특성 그 자체를 변질시킬 것이다. 사실 이처럼 변질된 조직체는 제아무리 큰 성과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레지오 마리아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토대로 할 때,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비롯하여 기도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략하는 일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음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몸이 살아 있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레지오 회합에서의 묵주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이다.

15. 다른 신심 행사중에 바쳐진 레지오의 기도

설사 쁘레시디움 회합을 열기 전에 본당 공동체의 다른 행사에서 레지오의 기도를 바쳤다고 하더라도, 쁘레시디움 회합에서는 레지오의 기도 전체를 새롭게 다시 바쳐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16. 회합에서 레지오의 기도 외에 다른 특별한 기도를 바치는 문제

회합에서 바치는 기도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지향을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 그러한 기도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가) 레지오 회합의 통상 기도문을 특별한 지향으로 바치는 문제: 회합에서 바치는 기도는 반드시 레지오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하며, 다른 지향을 둘 수 없다.

(나) 다른 기도문을 레지오의 통상 기도문에 덧붙여 특별한 지향을 두고 바치는 문제: 레지오의 기도문 자체가 이미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른 기도문을 덧붙여 바칠 수 없다. 다만 레지오가 이례적으로 마음 써야 할 사안이 있어서 특별한 기도를 바쳐야 할 때가 이따금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 기도문에 덧붙인 다른 짧은 기도를 바칠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 기도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다) 어떤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기도를 바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단원들에게 알리어 단원들의 개인적인 신심 행위를 통하여 그 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도 록 권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17. 성실한 보고가 겸손에 어긋나는가

어떤 단원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선행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은 겸손의 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알맹이 없는 보고를 합리화한다.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시인들은 이를 일컬어 ‘마귀가 선호하는 죄’라고 읊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겸손이 아닌 교만이 교묘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세심한 지도를 벗어나려는 욕구가 암암리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말로 참된 겸손이라면, 교만을 겸손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내걸도록 단원들을 다그칠까?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다른 단원들이 모방한다면 그 쁘레시디움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단순함은 단원들이 그와 같은 특출한 행동을 삼가고, 조직체의 규율과 준수 사항을 기꺼이 따르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합을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개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 보고는 그 하나하나가 회합을 쌓아 올리는 한 장의 벽돌이다.

18. 화합은 일치의 표시이다

화합이란 레지오 회합에서 사랑의 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레지오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능률도 결국 화합의 정신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화합을 깨뜨리면서 얻어낸 것이라면 그 진정한 의미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그 본질에서 화합과는 상치하는 결점들이 있다면 레지오에서는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적극 멀리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결점이란 독선을 부리거나 흠잡기를 일삼거나 화를 내거나 비꼬거나 잘난 체하는 행동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결점이 회합에 끼어들면 화합의 분위기는 즉시 사라져 버린다.

19. 동료 단원의 활동에 모든 단원들이 관심을 갖자

회합은 기도로써 시작되고, 기도를 바치는 동안 단원들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회합에 참석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모두가 동등하게 회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러한 느낌은 회합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개별 단원들끼리 사사로이 잡담을 나누거나 웃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합에서 발표하는 활동 보고 하나하나가 그 활동을 맡았던 단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단원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보고를 듣고 있는 동료 단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단원과 함께 활동 대상자나 활동 장소를 영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모든 활동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동료 단원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단순히 주의만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와는 달리 단원들은 자신에게 흥미가 있는 활동 보고를 들을 때에 기울이는 그러한 집중력만이 아니라, 그 일에 내밀하게 접촉되어 있고 개인적인 중대사라는 감각을 지니고서 회합의 매 순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매달 한 차례씩 되풀이해서 단원들에게 들려주는 상훈(常訓)은 레지오 조직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군인에게 용기가 부족하면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만, 반역 행위는 용기 부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나쁜 행위이다.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알게 되거나 논의되었던 비밀을 지켜야 사안을 외부에 퍼뜨리는 것은 레지오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레지오가 비밀 준수를 강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때때로 다소 열성이 지나친 단원들 가운데에는, 가령 냉담자 방문 활동을 보고할 때, 활동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나 사정을 뿌레시디움에 보고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고 주장을 펴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제안은 얼핏 듣기에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오류가 있으며, 레지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뿌레시디움의 결코 만족할 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체의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난다. 무릇 단체란 모든 문제와 안건에 대한 조직원들의 활발한 논의에 의해서 발전한다.

(나) 그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공동 방문자들끼리도 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모순이 나온다.

(다) 레지오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단위체는 단원 개인이나 한 쌍의 공동 방문자가 아니라 뿌레시디움이다. 통상적인 활동의 세부적인 모든 내용은 뿌레시디움에 마땅히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단원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뿌레시디움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웃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 레지오의 경우와 사제의 경우를 비교할 수는 없다. 사제가 행하는 역할은 레지오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사제처럼 존중 받는 사람이 방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는 인접한 가정이나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마) 단원들에게서 합당한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없앤다는 것은 레지오 조직에 매우 본질적인 면밀한 관리를 없앤다는 것과 같다. 만일 합당한 보고를 할 의무를 단원들에게서 제거해버린다면 효과적인 조언이나 지도나 비평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뿌레시디움이 존재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단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은 보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교육과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뿌레시디움이 단원들의 주간 활동 보고를

합당한 방식으로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레지오에게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가장 이상한 일은 비밀 유지 의무 그 자체가 더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놀라울 정도로 존중받고 있는 레지오의 비밀 엄수 의무는 단원들의 활동을 빠르게 레시디움이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장악력이 약해지면 ‘비밀 준수 의무’도 그와 더불어 느슨해진다. 한마디로, 빠르게 레시디움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단위체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하다.

단원들이 빠르게 레시디움 회합에서 하는 보고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집안 비밀을 의논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밀이 새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또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는, 누구라도 똑같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 설사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갔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보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자를 쫓아내는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의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영적 지도자나 그를 만날 수 없을 때는 권한을 가진 다른 조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1. 발언의 자유

회합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가? 빠르게 레시디움의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라 그 특성상 가족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의 ‘공정한 논평’은 환영해야 한다. 다만 도전적인 어조를 띠는 단원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버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2. 회합은 단원 생활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인간의 본성은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올리고자 갖은 애를 태우다가도, 일단 어떤 것이든 성과가 드러나면 곧 마음이 변하여 얻은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성과가 눈에 보인다 해서 반드시 활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단원은 단 한 번 접촉하여 쉽게 성과를 얻는가 하면, 어떤 단원은 영웅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꾸준히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다. 헛된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활동을 포기하게 되므로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활동

을 평가하는 것은, 마치 모래밭이 단단한 밑받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원 생활을 바르게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밑받침이 되어 주지 못한다. 단원들에게는 받쳐 주는 힘이 꼭 필요하다. 단원들은 매주 뵤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독특한 회의 진행과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보고하고, 축복 속에 동료애를 나누고, 강력한 규율의 힘에 의지하며, 활발한 토론과 정연한 질서로 이어지는 회합에서 자신을 받쳐 주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

뵤레시디움 주회합은 헛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단원들의 자세를 느슨하게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지오 조직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하도록 회합의 모든 내용이 그들을 단단히 묶어 준다. 회합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갈 때, 단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원래의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며, 마침내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식과 확신을 바탕으로 단원들은 레지오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서, 성모님이 당신 아드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에 쓰시는 원동력이 우리 레지오 조직 안에 있음을 알아보아야 한다. 단원들 각자가 레지오 조직의 구성원이다. 레지오 조직의 활동은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단원 자격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은 레지오 조직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모님은 이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성과를 얻으시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완전한 것이 된다. “오로지 성모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는지 완전히 아시기 때문”(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드 몽포르)이다.

23. 뵤레시디움은 성모님의 ‘현존’이다

여기서는 신자 개개인을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더욱 완전하게 결속시켜 교회의 공식적이고 사목적인 사도직 활동에 두루 활용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사도직과 개인 사도직의 관계는 전례와 개인 기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공동체적 사도직은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의 보살핌과 결합되어 있고 또 그 보살핌에 의하여 지탱된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자체를 세상에 낳아 주셨고 하느님에게서 이 위대한 임무에 맞갖은 은혜를 받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56항) 성모님은 당신께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역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신다. 뵤레시디움은 성

모님의 임무를 돕고자 열망하는 한 무리의 사랑스런 영혼들을 성모님이 쓰시도록 맡겨 드리고 있으며, 성모님은 틀림없이 이러한 협력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쁘레시디움은 성모님이 지역적으로 현존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성모님은 이를 통하여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성을 재현하실 것이다. 이처럼 그 이념에 충실한 뿌레시디움이라면 자기 주변에 생명과 쇄신과 치유와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네 두 발을 지혜의 차꼬에 밀어 넣고 네 목을 지혜의 큰칼에 밀어 넣어라.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가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 주리라. 지혜의 차꼬는 너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그의 큰 칼은 영광의 옷이 되리라. 지혜의 멍에는 금장식이고 그의 사슬은 자주색 끈이다.”(집회 6,24-30)

* 기존 교본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이 글은 교회가 집회서 6,24-30의 말씀을 마리아께 적용시킨 것이다’라고 하면서, she, her 등을 모두 마리아로 의역해 놓았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표현되기에 she, her 등은 마리아가 아닌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최고의 지혜’(상지)이므로, 지혜는 결국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20장 레지오의 조직은 바꿀 수 없다

1.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대로 레지오의 규정이나 관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 교본에 기술된 제도는 레지오의 제도이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현재로서는 레지오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레지오다운 것은 거의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 자체로 아무리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레지오는 주저하지 않고 관계를 끊을 것이다.

2. 단체의 이름은 그다지 확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어떤 집단에 기존의 권위 있는 조직의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막는 일을 실질적인 횡포로 간주한다.

때때로 이른바 ‘현대화된 단원들’은 레지오의 이름은 유지하면서도 레지오의 거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그들은 확고히 자리 잡은 레지오의 위상과 단원들을 것처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물로 이전시키는 행위가 영적 질서 안에서 저질러진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가장 나쁜 종류의 약탈 행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 레지오의 조직과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는 일부 단원들뿐 아니라 때때로 지역 단위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기 지역이 일반적인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실정에 맞게 특별한 규율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 사정에 알맞도록 레지오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종종 하곤 한다. 그렇지만 그런 제안대로 레지오 조직을 변경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는 거의 언제나 필요 때문이 아닌 그릇된 독립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레지오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입증하였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결코 하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고, 그릇된 독립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변절자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점을 모든 단원들에게 항상 납득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적어도 레지오의 제반 규율과 관련하여 사적인 판단을 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즉, 도의상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침은 레지오의 이름 아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4. 흔히 아주 지능적인 사람들이 레지오의 조직이나 규정을 부분적으로 교묘히 뽑아

내어 이리저리 짜 맞추는 일에 탐닉한다. 그러나 것처럼 교묘한 행위로는 결코 본래 레지오 조직의 진정한 힘이 되었던 영감과 감미로움이라는 특성을 정확히 포착해 낼 수도 없다. 그 결과, 부분들을 선택해 짜 맞추는 그와 같은 유형의 외과수술은 대개 시체만 남길 뿐이며, 기껏해야 허울 좋은 기구만 만들어 낼 뿐이다. 초라한 성과나 실패 뒤에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만 남는다.

5.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의회를 두는 주된 목적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각급 평의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은 가장 훌륭한 조직들 가운데 하나이다.”(교황 요한 23세)

“여러분은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 축소하면 약해질 뿐이고, 절단하면 불구가 될 뿐이다. 각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므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발전에 관하여)